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11.9일(수) 오후 16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1. 09. (수)	담당부서	산업부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기준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김태우 서기관(044-203-5651) 이서진 사무관(044-203-5655)

산업부, 관계부처와 전반적인 한미 통상 대응방향 긴급 점검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11.9.(수) 14:00,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, 미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주요 한미 통상이슈들을 긴급 점검했다.

□ 현재 진행중인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후보가 유력한 상황으로

○ **트럼프** 후보의 경우, **미국 우선주의**(America First)에 따라 반**무역주의** 및 **보호무역 강화**를 주장한 만큼, 미국 **통상환경**의 **불확실성**이 **증대**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,

○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.

□ 특히,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별 주요 미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, 양자 협의채널 강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.

○ 아울러,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, 민관합동의 공동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고 양자, 다자 차원의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.

□ 산업부는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트럼프 후보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, 철강 등 **자국 제조업 육성** 및 석유·세일가스 등 **화석에너지 개발** 등을 강조한 만큼,

○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**양국간 상호 이익이되는 교역·투자 확대 방안을**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태우 서기관(☎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